

“30 번째 예배에 즈음하여...”

5 월 3 일 '첫예배' 를 드린 후 이제 11 월 22 일이면 30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된다. 우연하게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30 번째 예배가 된다.

내가 30 번째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처음부터 창립예배라고 하지 않고 '첫예배'라고한 이유도 매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교회역사의 모든 기준을 삼기 위해서다. 첫 예배이후 30 번째 예배를 감사예배로 드리고, 30 번 예배드린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것이 무엇인지, 첫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후에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이 정말 있는지 점검해 볼것이다.

만약에 단 하나라도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반성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하고 다시 60 번째 예배를 향해 정진 할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백번, 그 다음엔 200 번, 300 번... 그리고 천번째 예배를 향해 나아갈것이다. 천번의 주일예배를 드리려면 20 년을 훌쩍 넘겨야한다. 나는 1 주년, 2 주년, 혹은 10 주년 창립기념예배를 드리지 않을 생각이다. 30 번, 60 번 다음에는 매 100 번째마다 감사예배를 드릴것이다.

마태복음 13 장에는 '네가지 땅에 떨어진 씨' 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

'씨' 는 천국의 말씀에 비유했고, '네가지 땅' 은 사람들의 마음에 비유했다. 오직 '좋은 땅' 에 뿌려진 '씨' 만이 백배, 육십배 그리고 삼십배의 결실을 냈다. 나머지 '길가', '돌밭', '가시떨기' 는 씨가 뿌려 졌지만 어떤 결실도 맺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단 한가지 '나쁜 땅' 이 었기 때문이다. 좋은 땅에는 적은 결실이라도 꼭 맺히는 법이다. 그것이 천국 복음의 결과다.

나는 매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천국 복음의 씨' 를 사람들의 심령에 뿌리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30 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자가 좋은 땅이었다면 분명한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에 결실을 확인 할수 없다면 결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라도 해야 그나마 회개가 작은 결실이 될 수 있다.

예배의 참된 의미는 예배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하지 않는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될때 예배는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을 독선적이고 지배적인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하나님께서 예배 하는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자신만이 경배를 받기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예배하는 자가 '거룩한 산제물' 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찾으시 기때문이다.(로마서 12:1-2) 예배를 드리는 자신이 그 예배에서 죽어 없어지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도록 하는 이유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배는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다.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 죽기위해 예배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주일예배에 가득 하기를 바란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 나는 예배 시작전 첫예배 후에 몇번째 예배라는 것을 밝힌다. 만약에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그예배가 그분에게는 첫예배가 되는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 를 드렸다. (왕상 3:4; 대하 1:6) 천마리의 동물을 번제로 드렸다는 뜻이아닌가? '일천' 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자신을 천번 죽이는 것이요, 혹은 천가지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요, 천 이란 수를 영적인 해석 차원에서 완전수로 본다면 전인격, 자신 전부,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의미가 있다.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을 죽이는 예배를 드렸을까?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을 정확하게 언제라고 날자와 시간을 말 할수는 없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분명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도 하기전에 나는 예배를 드린것이다. 그러나 나자신을 예배에서 죽이 기 시작 한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십년이 지난후였다. 그런데 나를 죽이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시대에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기독교가 비판를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천번의 예배를 드렸지만 단 한번도 죽은적이 없기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은 솔로몬의 천번의 희생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의 예배에 천번을 죽였으니, 아니 천가지 죄를 회개했으니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신것이다. 그리고 난후 그는 소원하던 신령한 지혜를 복으로 얻지 않았는가?

나는 1 주년이 아니라 삼십번의 예배가 중요하고, 60 번, 백번... 천번의 예배가 중요하다.예배를 그만큼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죽었다는 뜻이고 변한 것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30 번죽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난 자들에게서 기독교는 세상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최사무엘목사 칼럼 10-22-2015]

<저작권자 © 서만옥스 한인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